

韓國民俗藥

李善宇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Korean Folk Medicine

Sun Ju Lee

College of Pharmac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原始時代生活相：原始人은 먹을 것을 求하기 爲하여 山野에서의 狩獵, 海濱에서의 漁撈 其他 草根本皮를 먹고 泄瀉, 中毒等 其他的 疾病이라는 뜻하지 않은 不可思議의 現象에 對하여는 神과 惡魔의 所爲 또는 所罰이라하여 神에게 祈禱 또는 預防(呪禁)으로 治療하려고 하였으나, 動物들이 生食하면서 때로는 病들고 때로는 그 病을 고치는 草木을 먹고 治療되는 것을 經驗하여 어떠한 病에는 어떠한 藥(天然物)을 써서 낫는다는 原始的 藥用術 即 醫術이 人智로 發達하였던 것은 어느 民族이나 共通된 經驗이다. 또 祈禱,呪禁以外에 藥物은 外用으로만 하고 內服藥으로는 酒類를 使用한데 지나지 않았으나 草根本皮를 使用하는 것도 原始人們의 共通된 醫療方法이었다. 天然物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季節 以外도 平常時에 供用하기 爲하여 採集貯藏하는法, 그리고 乾燥密閉하는等,多少間藥學의 知識을 必要로 했다. 原始때도 女子는 分娩이라는 生理的事情으로 貯藏品의 管理는 主로 女子가 主管하여 原始藥師兼醫師는 女子이었다.

醫藥의 創始 :

1. 藝術燦爛했던 古代 埃及民族들은 學問과 藝術의 最高權威를 가진 神으로서 尊奉을 받는 人身馬首의 神을 最高醫神으로 崇奉하고 있다(西洋醫學史：小川政修著).
2. 中國醫藥의 創設者이며 農神으로서 五穀의 栽培를 가르치며 藥草를 썹어서 飲食으로써 醫療方法을 創造한 神農氏 炎帝와 中國漢民族의 初代君神으로 많은 神仙을 맞아 醫療知識을 배웠다는 黃帝로친다 (Wang and Wu: History of Chinese Medicine).
3. 韓國은 古記에 依하면 桓雄天王이 무려 3千名을 거느리고 太白山頂의 神壇樹下에 나타나서 神市를 열고 風

伯雨師 雲師와 더불어 命과 痘等 五事를 主로한 무릇 人間 360餘事를 다스리는데 있어 命을 主로하신 것은 全百姓의 全生命을 主宰할 수 있는 神의 權能을 意味한 것이며 痘을 主로 한것을 國民의 疾病 또는豫防하는 모든 醫療行爲와 그 制度도 이때부터 創設된 것으로서 桓雄天王은 우리의 醫療界的 創始祖이다. 이 時代의 醫療應用方法에 있어서는 다만 原始醫術의 傳統은 받은 祈禱와 預防(呪禁)과 같은 迷信的方法 또는 天然物藥劑의 治療degree이었다(僧一然 著 三國遺事 一卷, 金斗鍾: 朝鮮醫學鼻祖).

4. 不死藥을 쓰면 神仙이 될수도 있다고 믿었다. 219 B.C 中國의 秦人 徐福이 秦始皇(221~210 B.C.)의 命을 받아 不老長生藥을 求하기 爲하여 同行男女數千人과 더불어 三神山에 찾았는데 이것은 中國의 옛날 醫藥發展에 關與된 것으로서 長生不死한다는 仙道術에 關聯된 것이다.

이 神秘의 仙境인 三神山이란 곳은 渤海(발해)中에 있는 蓬萊方丈 濡洲라고 傳하여지고 있다. 三神山은 여러神仙과 不死藥이 具備해 있으며 멀리 바라보면 구름과 같으며 이곳에 到着하게 되면 三神山은 오히려 水中에 있다. 거기에 臨하면 바람이 문득 불어가게 되어 나중에는 갈 수 없게 된다고 「史設封禪書」에 써있다. 其當時에 遼東과 扶餘와 같은 東方地域의 仙道術과의 思想의 關聯이 깊었던 것을 미루어 生覺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學者들의 意見인 것 같다. 그래서 濟州島一角을 三神山으로 解釋해 보려는 論旨도 있다.

5. 鍊金術(Alchemy)은 西紀 317年 中國 東晉時代에 이미 抱朴子에 依하여 構想되었고 西洋에서는 훨씬後代인 1160年에 처음 論議되고 1224年에 獨逸에서 盛行, 1420年 法令發布, 17世紀中葉까지 繼續發展하였다. 즉

萬物은 地 水 火 風의 4元으로부터 된것임으로 같은 元素로 부터 된 鉛은 金으로 變하게 할수 있다는 그릇된 學說에 基礎를 두어서 目的到達은 못했으나 化學의 發達에 이르게되었다. (例; 低→高金屬; 赤色인 朱砂[HgS]→白水銀→黃金).

또 이렇게 만든 金食器를 쓰면 壽가 延長될 수 있으며, 鍊熟한 金을 服用하면 不老長生의 神仙이 될수 있다고 믿었던것이다. 神農本草經에 「金은 惡氣를 除하나 有毒하다. 그러나 高麗, 扶安(安南交趾)等產은 服用可하다」라고 했으니 그에 날에 冶金術 또는 金技術이 高度였음이 中國에 까지 알려졌던 것 같다.

印度는(Kaniska(肢國)의 侍醫) Charaka를 印度醫學의 祖上으로 삼기고 있고 또 印度醫學의 4大不調病理說(The Pathological Doctrine of 4 Major Disorders)이라함은 地 火 水 風의 不調에 起因하여 404病이 생긴다 했고, 495~435 B.C.에 Greece의 Empedocles(四元素說)은 火 水 土 風의 4元素로 되고 暖溫乾寒은 4原質이다. 그의 平衡狀態를 健康이라고 不調和를 疾病이라 하였고 greece의 醫聖 Hippocrates(44 BC)醫學에 있어서도 人體는 4元素로 되었고 이 4元素 該當液 即血, 粘液, 黃膽汁, 黑膽汁 이 調和될 때 健康하다라는 이 Hippocrates의 4元素說과 同 4液體病理說은 印度의 4大不調說과도 거의 一致한다. 또 唐나라初에 4氣德合하면 4神이 安和하고 1氣不調하면 101病이 生한다고 했고 4神이 作動하면 404病이 同時에 俱發한다고 記하여서 이는 佛教의 101病說의 影響이 많았다는 證據이다.

그리고 漢醫學에서는 神農本草經에 365日과 같은 數의 品種을 실린것은 中國古代哲學의 陰陽說에 의함이라하여 12支라는 수는 5行說의 相克法則 또는 相生法則 등은 잘아는 바이다. 또 우리의 血液型의 4種; 1896年李濟馬의 四象醫學의 根本인 4區分 이런面은 모두 각 理論은 드디어는 同一點으로 歸一하는 것 같다. 여기에 西洋인이 본 東洋醫學의 재미난 一端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E. Rich 및 W. Schtfuater에 依하면 中國人의 陰陽學說로 太極圖 그리고 1晝夜 24時間 組成을 檢討하여 12器官의 休息과 活動時를 割當하였다. 12支(24時間)時의 Energie循環은 2時間마다 他器官으로 變移한다하여서 器官極大時限(Organ Maximal Zeidence) (O.M.Z)라고 할 수 있는 事實이다.

肝(2時)→肺(4)→大腸(6)→胃(8)→脾(10)→心(12)→小腸(14)→膀胱(16)→腎(18)→循環(心包)(20)→三焦(溫度調節)(22)→膽(24)→肝으로 行. (2時は 3~5時와 같이 中心時間) 이 表의 大腸의 OMZ는 朝 5~7時 2時間에 大腸主要 排泄體勢에 있다. 夜半 1~3時의 深夜에 눈이 떨어지면 器官時間(Organ hour)方法에 肝臟기관이 不知中에 故障있는 것이 推察된다. 膽石痛이 夜半에 생기는 것은 膽의 OMZ가 夜半의 23~1時인 때문이다. 夜間은 蓄積機能(同化)이 主이고 晝間은 排泄機能(異化)이 主이다. 投藥도 鴻泄促進의 인가 補強促進의 인가에 따라 判定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 朝3時は 血壓이 低下하고 그리고 心臟活動도 低下하고 死亡時間도 2時間이 많은 것은 醫師의 常識이 되어 있고 13~15時頃에는 疲勞樣相이 나타난다고 引用説明했다. 그러나 古代에는 理論보다 앞서 各 民族마다의 疾病에 對한 治療方法을 各 民族, 部族마다 그나름대로 使用하여 온 民俗藥이 있고 그것으로 治療하는 治療方法도 있었다. 時代가 흐름에 따라 多少의 變遷은 있었으나 原則의 으로 그 民族自體에서 써왔던 것이 즉 民俗藥이다. 學說이나 理論은 變化될 수 있으나 오래 전부터 써왔던 民俗藥은 變하지 않고 그 옛부터 써왔던 材料와 方法 그대로이며 그 民族에게 그런대로 使用되었던 것이다.

그런點으로 보아 우리 民族에게 오래前부터 口傳하여 오든 여러가지 病治療에 써오던 民俗藥調查는 民俗學研究뿐만 아니라 天然物中에서의 新藥開發에 寄與되리라思料된다.